

산들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영점에서의 신앙”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삶의 감사함을 믿음 안에서 표현하고 나누고 또한, 기뻐하는 날이다. 특히 오늘은 부산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 학생들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폭력극복 10년 운동이라는 주제를 제안하고, 전 지구적인 폭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를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할지를 노력한 페르난도 엔스 교수가 방문한다. 또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시간인가.



요즘 학생들과 읽고 있는 논문 가운데 하나는 ‘영점에서의 신앙’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추락할 수도 없는 바닥을 경험한다. 우리의 모든 내적인 기대와 보장이 단절된 그 지점을 ‘영점’이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영점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신다. ‘영점’을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교통사고 후유증, 여러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들은 ‘영점’ 안에 있었다.

나는 며칠 전에 보았던 송명희 시인의 동영상상을 학생들과 같이 보았다. ‘나’라는 노래의 가사를 쓴 시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에

무대에 나온 시인의 얼굴을 꼭 잡아서 고정시켰다. 이렇게 해야 겨우 발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신의 온 삶을 담아 그 시를 읽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감사함의 표현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아름답고 몽클한 장면이었는지 모른다. 그 동영상상을 본 학생들의 일부는 흐느껴 울었고, 강의실은 숙연하였다.

우리는 생각하였다. 우리의 영점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우리는 영점에서 끝없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일까. 사실 영점은 우리의 의지가 투사되지 않는 곳이기때 하나님께서 더욱 생생하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점은 아닌가. 송명희 시인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인생의 영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으며, 그 감사함을 시로, 춤으로 표현한 모습을 보며 우리를 되돌아본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리라. 우리 인생이 세상의 영점을 벗어나면 감사해하고, 영점 안에서는 좌절하는 삶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일까. 오늘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온전한 하루로 채우자. 실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삶에서 사랑으로 구현하자.



■ 예가교회의 초창기에 제가 사도신조를 해설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교우들을 만나보니 각각 나름대로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가르친 것을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정도여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정리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한번 표출이 되면 일종의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서 제가 특히 신앙적인 문제로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하고, 또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형편 없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사도신조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사도신조를 쓰던 그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에는 특별히 강조를 해서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고, 말하는 사람이 강조한다고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면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은 매우 선별적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스스로 강약을 조절할 만큼 지혜로운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처럼 들을 것은 듣고, 뺄 것은 빼고 나름대로 강약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애를 키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사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모임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무엇으로 보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라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네가 공부를 안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는 무엇이든지 배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엉뚱한 이야기들로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키운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엄마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인 결과를 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믿지만, 그 사람의 말에 뒤이어 나오는 열매가 없으면 앞의 것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만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권면하면 여러분은 알아들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목록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셈이고 여러분은 그 많은 목록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수백 개의 궁궐을 짓고 한편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 놓은 셈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들풀보다 못



열왕기사	11:9 - 13
에베소서	6:10 - 20
마가복음서	6:14 - 29



한 인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신당을 세워놓고 모실 대로 다 모시면서 그 한쪽 끝에 예수라는 이름의 신전도 하나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신전도 하나 있지만, 그것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 것인데 이러면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사연들이 다들 구구합니다. 가장 재수 없는 경우는 대대손손 교회에 다니던 집안에서 자기 선택권이 없이 온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니고 교회에서 사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 삶이 어려워 인생에 대해 물음표를 가지고 종교를 찾다가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좀 살만해지면, 물에 빠진 놈을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목숨만 살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잊고는, 왜 나만 구하고 보따리는 안 구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몸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보따리는 아직 못 찾았으니, 보따리만 찾으면 나가겠다는 결의를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무엇인가 쟁겨서 나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 아무도 보따리를 쟁길 수 없고 그렇게 미적미적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은 자기처럼 물에 빠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에 빠지지 않는 법, 수영 하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까닭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리석었고, 여러분이 배운 모든 지식이 어리석었고, 여러분 모두가 전부 어리석은 것만 배워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물에 빠진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잘 생기고, 재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도 물에 빠져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은 커다랗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 또 하나는 파괴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것,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방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정말 좋거나, 죽거나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막장드라마입니다. 연극론에 따르면 자기 이야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이 막장드라마라서 막장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며 진짜라고 믿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금방 깨가 쏟아질 듯 하던 부부는 다음날 이혼을 합니다. 광고는 암보험 안 들면 죽는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로 바다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고 정말 어리석게 살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제가 가끔씩 권면을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컛등으로 흘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는 '사람 좋아하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 이상의 좋은 인생은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 망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러한 말조차도 심각하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곤두박질쳐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들로 살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종교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영성 훈련에는 일종의 고행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식, 독거, 침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고행을 하면 영적으로 고양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밥맛이 좋아지고 음식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혼자 있어 보면 사람을 반가워하게 되고, 네가 있다는 것을 고맙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한 인생은 죽음의 신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처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을 어둠의 세계에서 지배자가 되라고 공부하라고 뉘달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길 바란다면 사랑하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좋게 보라고, 좋은 말을 하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해보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넓게 말하면 영성 훈련이란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귀하고 음식이 귀하고 사람끼리 사귀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무엇을 해도 물에 빠진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돈 보따리가 크면 물에서 뜨는 줄 아는데 돈 보따리가 크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정말 큰 돈 보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돈 보따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포락형은 불에 달군 구리 기둥을 걸어가는 형벌입니다. 뒤에서 창으로 찌르니 할 수 없이 달군 구리 기둥을 걸어 가다가 밑에 있는 화로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 진시황은 그것을 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국은 금방 시들해져서 처음에는 한두 명 하다가 수백 명이 모여서 죽음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인생의 말로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한 인생은 죽음의 신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처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을 어둠의 세계에서 지배자가 되라고 공부하라고 댕달하고 있으니, 댕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길 바란다면 사랑하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좋게 보라고, 좋은 말을 하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니 좀 쉬게 되고 마음의 휴식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시커멓게 찌들어 온갖 잡내 나는 옷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옷을 좀 빨라는 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으로 보아도 교회보다는 직장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나아지려고 한다면 직장에서 사는 것이 나아져야지, 직장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괴로운데, 교회 와서 잠깐 숨통이 트이고 간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 재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좀 더 낮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모임에서 쓰는 워크북을 번역하면 노동책입니다. 일하는 것을 적는 책입니다. 여기서 배운 대로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가서는 조금 더 낮게 살라고 훈련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맨날 얻어맞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숨 좀 돌리겠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숨 돌리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가교회 초기에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모두 엉망이고 달라서 제가 글을 썼는데 요즘 여러분의 삶이나 말을 보니 교회의 삶이나 생활에 대한 이해가 엉망이라서 ‘교인되기’라는 책보다 더 짧고 명료하게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교회에 대해서도 가족모임에 대해서도 사람들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모임 인도자들을 가르치고 워크샵도 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인도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다 알아서 경중을 가리고 운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대놓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피곤했으니 그 수고를 풀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래도 치여 살고 저래도 치여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치여 살고 성공을 못해도 치여 삽니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돈을 못 벌면 못 번 대로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서 그러한 괴로운 인생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가교회는 일종의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일차적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이 나아가 세상을 바꿔내는 일을 하도록 하는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힘드니 와서 쉬라고 하는 쉽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절대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교회에 관한 생각, 교회 생활에 관한 생각이 백인백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향해 영점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쉽고 간소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목록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초보일 때는 안 된다는 목록까지 붙여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 인생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한 것들을 고치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사랑 최현숙: 문화제를 기쁨으로 누리고, 봄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격려와 힘을 주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가족모임 사진을 미루지 않고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아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5주기 동안 가족 식사를 준비하신 신나님께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가족원에게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신나님께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봄 김태연: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토요일 마술 배우기 시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새롬, 화음, 마리아님과 배따기 체험으로 사귀를 갖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화음님께 저녁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가족모임 애프터 시간에 다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유 박서현: 바람님께 격려문을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문화제 준비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가족 모임 후 늘빛, 샘물님을 용산역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김강진: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성찬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큰열매 김영미: 문화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가족모임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문화제 연습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섬김님께 사경회와 연경반 파일을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문화제 준비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해냄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가족들에게 감사문을 보내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추수감사주일 음식준비를 맛있게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감사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니다.

에스더 권영아: 문화제 준비를 기쁘게 하고, 감사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희은님과 생명님과 기쁨, 감사, 희망을 준비하여 만남의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문화제준비를 잘 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안부카톡을 하겠습니다.

보물 서보람: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고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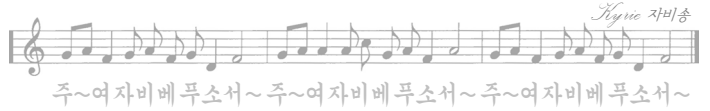
뿌리 조민경: 좋은님께 감사문을 보내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샤론님께 감사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매일 말씀을 읽고 가족 모두에게 문자를 하겠습니다.



창조절 아홉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38편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우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시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첫 기도

주님, 그리스도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
해, 오늘을 주셨으니, 이기심과 탐욕에 빠
져 지냈던 어제는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에 집중하여, 사랑하라 하신
삶을 누리게 하소서. 내 것을 퍼주는 사랑
의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사도행전
3-4/5-6/7
8-9/10-11/12-13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46편

소리 내어 천천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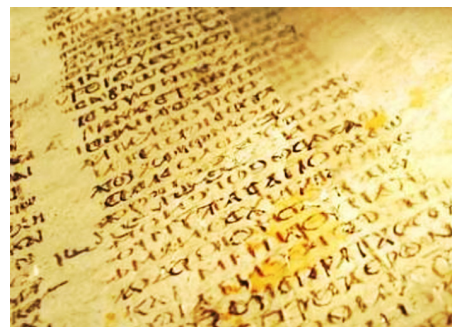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서 자세히 읽기

제 266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비교연구 (10)



바울의 부활이해 (5)

바울은 자기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이해했고, 자기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은 부활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표된 수백 수천 가지의 각종 교리들과도 다른 입장이자다.

바울이 믿는 부활을 나도 믿는다면,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식의 부활에 대한 나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각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결국 나의 부활은 예수님과도 바울과도 무관한 부활인 셈이다. 그럴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차라리, 시체가 벌떡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미이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마가복음서에서는 ‘부활’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간데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낫선 청년이 빈 무덤에 있다. 그렇다면, 그 낫선 청년이 예수님일까? 그러나, 낫선 청년은 예수님이 여기에 없다고 했으니, 본인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

장 9절 이하가 후대에 첨가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라리 9절 이하가 없는 편이 훨씬 마가복음다운 결론이다. 마가복음은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바울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해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까지의 부활 이야기는 이 점에서 바울의 부활이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다운 결말이란 느낌이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자. ‘부활’이라는 낱말 뜻 자체는, 한자말을 풀이하면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체가 죽고 다시 사는 경우는, 1) 시체가 아직 부패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경우, 2) 미이라가 되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 3) 시체가 썩고 뼈만 남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 4) 뼈도 가루가 되어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죽은 시체가 다시 사는 경우의 수이다.

물론, 다섯 번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뼈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었다가, 다시 먼지도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전제로 깔고 있는 ‘물리적인 몸’과의 연관관계가 사라져 버리고, 초월적인 의

미를 가진 부활이 되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다.

적어도, 뿔가루 정도는 남아서 재생되는 정도의 연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4가지 경우까지만 생각해 본 것이다.

5번과 같은 초월적 의미의 부활이라면, 6번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체는 시체대로 놔두고, 따로 부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물리적 연속성이 없으므로, 초월적인 부활이다.

당신은 위의 여섯 가지 입장 중 어떤 쪽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이 여섯 가지 경우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진 부활 개념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당신의 입장은 분명, 물리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 2가지 부활까지 포함하여, 총 여섯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부활’이라는 낱말은 ‘죽고 다시 산다’는 뜻으로 보아도 그 뜻 자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정하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다.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위의 여섯 가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느낌이다. 마가복음이 바울과 부활이해를 같이 한다면, 마가복음의 부활 역시 앞의 여섯 가지와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바울이나 마가복음서는 ‘부활’을 ‘죽은 시체’와의 연관성을 통해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성경이 있다. 그것이 구약성경이다. 구

약성경에서는 ‘부활’이란 말이 나오는가?

일단 ‘부활’이란 표현은 구약의 경우, 새번역, 개역, 개역개정, 공동번역, 카톨릭성경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부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까? ‘부활’이란 표현이 없는 것만큼이나, 구약성경은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부활은 바울의 책에서나 중요한 개념이지 구약성경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까지 가르치지 않는가? 사독파와는 달리 바리새파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집트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 그래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미이라와 같은 시체처리 방법들이 개발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좀비’(zombie)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좀비’는 ‘되살아난 시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최근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티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한다. 부두교에서는 시체 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좀비로 만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지칠 줄 모르는 좀비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좀비를 부리는 농장주들은 부를 축적했다는 설이 있다. 아마도, 부두교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해야 생존하는 현대인들은 전부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위해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한다는 점에서 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비’개념은 20세기에 공포물이나 판타지물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좀비’는 인간을 적대시하는 괴물로 등장하는데, 현대 영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나 이외에 타인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의 현대인들은 ‘좀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좀비는 되살아난 시체라는 기본적인 관점도 있지만, 산 사람이 좀비화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개념이다. 좀비는 그 존재 목적이 지칠 줄 모르는 노예노동력의 확보에 있다는 점과 자기 이외의 모든 타인을 적으로, 경쟁상대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자화상처럼 회자되기도 한다.

이집트 사람들이 기대한 부활은 당연히 ‘좀비’처럼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과 부를 영원히 누리길 원했고, 그들의 ‘부활신앙’은 이 점에서 그들의 욕망과 맞물려 있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부활이 돈과 권력의 영원한 소유와 향유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이왕이면 힘있고, 돈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가 채택한 윤회론과도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힌두교의 목표가 브라만과의 합일이고, 불교의 목표가 해탈하여 붓다가 되는 것이라도 해도,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소아인 자신의 아트만이 우주적 대아인 브라만과 합일되기보다는 이 땅에서 카스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희망했고,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붓다가 되기보다는 시주를 많이 하는 부자나 권력자가 되어서 해탈은 아니어도 극락 정도는 가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여기서, 극락은 인간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구현된 세상으로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화요초로 가득한 천국의 이미지와 같다. 이렇게 보면, 이는 마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지만, 천국

가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죽은 시체가 되살아나는 부활이나,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서 잘 먹고 잘사는 극락, 천국이나, 그 모습이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개념들이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고, 죽고, 부활하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 아닌 다른 길, 즉,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적당히 살아가도 잘되는 길로서 ‘천국’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들러붙었다. 불교가 붓다가 되는 길 말고, 다른 길로서 출가하지 않은 중생들을 위해 제시한 극락을 말했을 때, 전부 ‘극락’을 택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극락에서 잘 먹고 잘살다가 그 선행과 업적에 따라 다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잘 사는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가르침이 붓다처럼 살고 싶어하지 않는 불교인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천국도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제약 없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제시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진 유혹이라 할 수도 없다. 기독교의 교리는 4세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쪽으로 갔고, 따라서,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기화요초가 만발한 풍요의 왕국인 천국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는 길 대신에,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과 무관한 천국이라 불리는 선택지만 제시한 것이니, 교인들이 달리 선택할 것도 없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바울이 전하고 누렸던 부활을 완전히 대체해 버린 것이다.

이제 다시 바울의 부활 이해에 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기독교는 바울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 물론, 그 출발선상에서만 바울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로 갈수록 기독교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철학과 종교들이 뒤범벅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물론, ‘부활’은 바울이 창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곁에서 그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먼저 유포한 신앙이다. 즉, 부활은 바울이 자체 생산한 개념이 아니라, 그 역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받아들이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가장 충실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점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이었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의 첫 서신이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부터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

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살전4:13-18)

4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짧게 언급하고 있고, 더 이상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선교 초기부터 ‘부활’을 그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는 정도의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바울이 ‘부활’을 그의 선교 초기부터 언급된 가르침이긴 하나, ‘부활’을 꼭 알아야 한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후기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우리가 ‘부활’을 꼭 알아야 하고, 또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강력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바울의 부활이해에 대한 가장 초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따르면, 바울은 부활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1.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살전4:14a)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

데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살전4:14b)

3.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살전4:15b)

‘잠든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사람들이다. 물론, 바울은 ‘잠든 사람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다. 즉, 그들의 생명은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긴 잠에 들어갔을 뿐인 것이다. ‘영면’이나 ‘잠든다’는 개념은 인간의 정체성이 죽음으로써 단순히 소멸되거나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 잠든 채로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깨워서, 일으켜서 데리고 오실 것이라 본다. 그렇게 본다면, 3번과 잘 맞아떨어진다. 즉,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는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4장 16절에서 한 번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4:16b)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살전4:17)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한다고 전한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항상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여기서, 잠든 사람들이 부활한 상태나, 산 사람들이 변화된 상태는 이질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모두 함께 살 것이라고 했으니, 서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산다는 느낌은 아니다.

예가교회의 예배예전 중 성찬예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선포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일으켜서 함께 데리고 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느낌이 그가 혼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역사상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온다는 느낌으로, 그 선포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공중은 또 무엇인가?

부활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초기 부활에 대한 견해이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바울은 그의 선교 초기에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전하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인의 부활 중에서도 특히, 이미 죽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강조로 치면, 고린도전서처럼 매우 강한 강조는 아니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온 세계의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전한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나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형제들이 전부 부활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름 위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한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옥황상제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 옥황상제는 구름 위에서 산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성당에 가면,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 위에 떠있는 그림이 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상당히 소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의 부활이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야 가장 바울적인 면모를 띄게 된다.

바울의 서신은 후기 쪽으로 갈수록 좀더 명료한 부활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불릴 만큼 바울의 부활이해를

잘 보여주는 서신이다. 그 중에서도 다음 대목을 읽어보자.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째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맨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고전 15:22-26)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담 안에서’와 대비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사람이 23절에 의하여 한정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때가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교리들과 달리, 바울은 초기서신부터 일관되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부활 신앙이 철저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신앙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웃는새 가족

신나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가족들과 문화제 및 워십준비를 하느라 함께한 시간이 많아 좋았다, 문화제 동영상 준비하면서 지난 일년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연초에 비해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사진기록을 남겨준 아모님께 감사하다, 워십을 준비하면서, 교회 밖 사람들과의 사귀어 없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나를 반성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필이 운동회에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방통대 과제물과 시험으로 바쁜 한 주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목숨을 걸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던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 생각했다, 그제 예수님이 평화를 줬다고 생각하고 누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했다, 하루하루 계획된 일과를 꼭 실천하겠다, 성경을 그제 눈으로만 읽었다, 정적으로 번역되어 어색한 장면묘사도 그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리며 읽어보면 좀 더 느낌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14장의 에피소드는 매우 격정적이고 파

토스가 충만하다, 목사님의 일깨움으로 읽을 때마다 숨쉬는 성경을 읽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화목 가족

교회 3층 친교실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화음님이 집으로 찾아와 일대일 만남을 하는 시간이 좋았다, 감기 몸살에 걸린 샘물님이 누워계시다가도 문화제 회의시간에 적극 참여해 좋은 아이디어로 진행되어 감사했다, 남산 산책 때 문화제 마지막 장면에 힌트를 얻게 되어 좋았고 함께 협의하면서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기뻐다, 나무가 일대일 만남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말해주어 고마웠다, 서로 사귀어 통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감사했다, 맑은, 한가운, 마르다님께 문자를 보내고, 자원 봉사교육을 마치고 샘물님과 호명호수를 산책하면서 가을을 느끼며 즐거웠다, 고등학교 행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엠티를 통해 숙제처럼 느꼈던 문화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화목가족원들의 저력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리얼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해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다,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민서에게 선물을 하겠다, 파토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겠다, 식탁가족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해냄 가족

성실님 집에서 맑은님을 포함하여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문화제 춤, 합주, 성가대 반주 연습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제주 입영 당일엔 연기신청서를 받아준 직원에게 떡과 계주옷을 선물했더니 오히려 고마워했다, 오랜만에 연경반을 들어 기쁨과 감사로 꽉 찬 한 주를 보냈다, 문화제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친해져서 좋다, 인도자님이 권하여 섬김님과 이메일로 일대일 만남을 하여 좋았다, 섬김님이 우리 가족임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전력을 다해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으나 새로워졌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푸른, 모퉁이돌님께 감사편지를 쓰겠다, 성만찬에 기쁘고 감사하게

참여하고 성찬대접한 가족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교우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호호 가족

바다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류지호와 일대일 만남을 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편해지도록 노력하겠다, 예배준비와 성찬준비로 모여 사귀는 시간이 좋았다, 남산 산책 후 교우들과 사귀어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아침 운동 시간에 작은 불꽃님과 나누는 믿음의 대화가 즐겁고 재미있었다, 문화제 춤 연습을 하면서 몸은 뻣뻣해 잘 안 되지만, 함께 하니 즐겁고 기쁘다, 장모님을 모시고 진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초청자였던 이규진에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감사하는 문자를 보냈다, 마가 퀴즈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뻐다,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화목가족과 나누어 먹어 뿌듯했다, 교회 안에서는 교우들을 좋아하고 나누는 삶을 기뻐하고, 교회 밖 사람들은 사귀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이 붙잡힌 격정적인 장면에서 파토스가 전달되었다,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을 따라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구했다, 자모실을 수시로 깨끗이 청소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하겠다, 성찬대접하는 가족에게 감사문자를 보내겠다, 신발장 정리를 하겠다, 식탁가족의 안부를 묻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정오 가족

카이조쿠에서 4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부산에서의 촬영을 마쳤다, 가족모임에서 보물이 인도자를 맡기로 해서 무척 기뻐다, 교역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모임에서 하는 모든 일이 팀작업임을 깨달아 한 팀, 한 가족이란 생각이 들어 가족모임의 소중함을 느꼈고 설렌다,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내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했다, 인도자를 하는 일이 떨리고 두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먹는 열매는 정서인 것에 공감하며, 호흡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좋다고 표현하며 사는 부분을 늘려나가는 소원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탁 후에 감사찬송을 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삶과 피를 주어 제자들을 먹이신 성만찬에 대한 감사찬송이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광경을 본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생각은 모두 달랐다, 어떤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생각해보았다, 14장을 다시 읽으며 격정적인 파토스를 느껴보려고 애썼다.”라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하늘바람 가족

좋은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엠티로 함께 누리고 즐겨 기뻐다, 자연을 즐기며 함께 산책하며 즐거웠다, 문화제 대본을 재미있게 짜고 이야기하며 한 믿음과 한 가족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 감사했다, 친구에게 자녀양육웁샵 초청장을 줬다, 종로여성센터에서 창업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받고 있다, 가족엠티가 즐거웠고 잘 마무리해서 감사했다, 고속터미널에 가게 하나를 더 계약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 긴장된다, 일로 바쁘지만 아침에 호흡기도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SH공사 자금지원을 받아 염창역 근처에 집을 얻었다, 11월 29일에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여러 사

람들과 만나고 얘기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제자들이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도망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읽고 나도 돈이나, 하나님이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교우들을 나의 수고로 먹여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 동안 파토스가 전혀 없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열음 가족

새롬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방송대 과제물을 즐겁게 마무리했다, 가족MT로 마술배우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 먹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좋았다, 예배위원으로 매일을 ‘참 좋다’로 선택하고 살았다, 식탁에서 산들이와 밥 먹는 일이 좋다, 문화제 준비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누리 감사하다, 새롬님과 아웃도어 답사로 양수리에 있는 배농장을 방문했다, 정말 좋은 날에 좋은 사람들과 가을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 유치원 축제, 발표회 참석하느라 설레었다, 회사 단합대회에 직원들을 위해

행사 준비를 열심히 했고 무사히 마쳐서 뿌듯하다, 요한복음서와 요한일서를 읽었다, 진로에 대해 생각을 했고, 친구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만났다, 셋넷학교 친구들과 과도 학교 밖에서 만나서 사귀었다, 목과 팔 통증이 심해져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추수감사고백문을 작성하며 좋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내가 가족모임과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고 활동할 때 무엇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말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식탁가족에서 산들이와 밥 먹으며 사귀었다, 파토스를 살려가며 파토스를 살려 마가복음서를 읽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하겠다, 식탁가족 한 명에게 일대일 만남 신청을 하겠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다, 마술연습을 열심히 해서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파토스를 담아서 감사표현을 하겠다, 식탁가족에게 꿀을 대접하겠다, 식탁가족이었던 정영희님과 전화만남이나 문자만남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하늘바람 가족으로 함께 사는 기쁨

하늘바람 가족 뿌리 조민경



여느 때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써달라는 편집부의 요청을 받으면 그 동안 여기 저기 모아두었던 산돌지들을 꺼내어 다시 한번 다른 분들이 쓰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읽어본다.

한 분, 한 분 예가교회로 함께 살아가며 그 동안 기뻐했던 일들,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하며 살고, 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음을 느낀다.

또 가까이에서는 부족한 나를 항상 잘 되리라 믿고 격려해주고 늘 함께 해주는 하늘바람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고는 있지만, 한발 한발 교회의 가르침을 좇아 가고자 애쓰고 있다. 하늘바람 가족들을 만나 난 참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으며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본다.

즐거움은 내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힘들다는 투정을 부리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허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선한 것과 악한 것 중, 항상 선(좋은 것)을 택하라는 좋은 말씀으로 선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해주신다. 가족원들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최고인 우리 인도자님이다.

좋은님은 예비인도자님으로 인도자님을 도와 교회에 가르침에 열심히 따르려 애쓰고 그렇게 직접 살아가면서 점점 더 사랑하는 맛을 깊게 알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샤론님은 언제나 ‘뭐든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하며 깊은 애정을 담아 사랑으로 관심을 주시는 또 한 명의 예비인도자님이다. 점점 더 샤론님과 가족이라는 느낌이 강해지고 좋아하게 되어서 참 좋다.

모퉁이돌님은 가족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정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열심히 국악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은 정말 멋지다.

한가온님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지혜롭게 사려 깊은 배려와 조언으로 해답을 찾아주신다. 한가온님을 생각하면 예전 초등학교 때 전과 뒤에 정답지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던 것이 생각난다.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다 보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크고 값진 선물인지 새삼 또 느끼게 된다. 내 옆에 있는 교우가 복음임을 알게 된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생명의 삶으로 서로를 이끌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가족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겠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생명의 삶으로 서로를 이끌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가족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겠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생명의 삶으로 서로를 이끌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가족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겠다.



부서별 소식

매월 마지막 주에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린 6개의 부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편집부 소식까지 있습니다. 각 부서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9, 10월 '사라진 슬리퍼를 찾아라'라는 스토리 아래 사랑의 실천으로 슬리퍼를 찾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엠티가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모여 문화제를 구상하고, 토요일엔 낚시를 했는데 한번도 물고기를 낚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는 매우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낚은 물고기는 아니었지만, 회를 많이 먹어서 좋았습니다. 성경공부는 마가복음서 1장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민권이 송별회로 롤링페이퍼도 쓰고 바리깡, 왁스, 알람시계, 모자 등의 다양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선물한 바리깡으로 학생부 전원이 참여하여 민권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관리팀

첫 주 오후에 정기모임을 갖고, 10월 중 교회당 관리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주방 비품 정리를 하였고, 부족한 식기를 구입하여 보충했습니다. 3층과

4층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예배를 앞두고, 2층 테라스 데크를 전면 교체하고, 이종진님이 1차적으로 바닥을 칠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분리 수거하였습니다.

청년부

첫 주 해냄가족과의 대가족만남을 예정하였으나, 공동체모임이 지연되어, 선물만 전달하고, 12월 중에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정기모임 후에, 추수감사예배와 문화제를 준비하는 모임을 갖고,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을 내어 연습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부

10월 13일에 용산가족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자리도 좋은 곳으로 정해서 참 좋았습니다. 야외수업처럼 진행하였는데, 암송수업, 노래수업, 놀이수업을 평소보다 스케일을 크게, 소리로

크게 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찬양을 3주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동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민서 송별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찬을 배우고 아이들이 성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첫 주 공동체모임에서는 생활비협의를 하고, 생활공동체를 시작한지, 4년 6개월이 되어, 공동체 참여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주 예배 전에는 화해의 시간을 갖고, 셋째 주 오후에는 중간생활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가대

10월 5일에 정기모임으로 모여 문화제 발표곡과 칸타타 곡을 연습했습니다. 찬양은 기도이고, 성가대는 기도 인도자이며, 성가대가 맡고 있는 기도는 짧지만 중요한 기도이므로 기도에 집중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장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매주일 9시 40분에 모여 문화제 발표곡과 예배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편집부

10월부터 마리아 강수진님이 수습편집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습부원으로서 하는 일은 매일 오전과 밤에 30분씩 타자 연습을 하고 교우들에게 원고를 청탁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가 소식 & 공지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교우들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로 삼시다!

2. 오늘 예배 중에는 가족모임과 교육부서별로 추수감사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3. 오늘 낮 3시부터는 예배실에서 추수감사문화제가 있습니다.

4. 오늘 설교는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신학과 교수인 페르난도 엔스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는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5. 다음 주부터 4주간 매주 주일 낮 3시에 6시까지, 두 번째 자녀양육 워크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양육 워크샵을 위한 초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명단이 있으면, 워크샵진행을 맡은 웃는새 가족의 최현숙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목요연경반이 진행 중입니다. 연경반 내용은 당일 밤에 자료실에 올라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연경반 내용을 요약한 문자 발송은 매주 계속 됩니다.

7. 목요기도회는 연경반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모임인 목요기도회에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창립기념 사경회 자료가 자료실에 올라와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산돌 800호의 '교회는 어떻게 짜여지는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고, 사경회 강의도 한 번 이상 다시 들어서, 예가교회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공동체인가를 분명히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두 명이 상이 모이는 만남에서는 예가교회가 받은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누리고 깨달은 믿음의 이야기들과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 예가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운영 중입니다. 예가교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교우들께서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글이나 사진 등을 남겨주시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니, 교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0. 계좌로 현금하신 교우들은 현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현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현금으로 드리는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11. 다음 주는 반가운 주일이며, 예배위원은 석순근, 황현미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한 주간 기도와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화목가족이 메인을,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식탁으로 대접합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시편 82편 ~ 시편 91편
화	시편 92편 ~ 시편 104편
수	시편 105편 ~ 시편 109편
목	시편 110편 ~ 시편 119편
금	시편 120편 ~ 시편 135편
토	시편 136편 ~ 시편 145편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